■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13-241.
http://doi.org/10.17948/kcs.2023..98.213

조선초기 태조-세종대 고려대장경의 인경과 그 의의

박용진(朴鎔辰)*

목 차

1. 머리말
2. 태조대 대장경 인경과 의의
3. 정종-세종대 대장경 인경과 의의
4. 맺음말

국문초록

고려 재조대장경은 13세기 조성된 이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경은 약 20여 회이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는 전체 7회이지만 4회가 조선초기인 태조-세종대에 이루어졌다. 태조대 1393년 대장경 인경은 태조와 왕실, 관료의 발원으로 개경 연복사 오층탑전에 봉안키 위한 것이었다. 1393년 3-6월 무렵에 인경을 완료하고 연복사 오층탑에 봉안하였다. 고려 개창 이래 개경 도성 내 주요 사원인 연복사의 오층탑전을 중수하고 대장경을 봉안하여, 태조의 개인적 신불 이외 국가 창업의 공을 기리고 국리민복과 국가영세를 기원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정종대 1399년 대장경 인경은 태조의 사재를 근간으로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조선 신도 한양의 흥천사 사리탑전에 봉안키 위한 것이었다. 흥천사는 1398년 태조가 신덕왕후의 원당으로 한양 도성 내에 창건하였고, 선종 최고 사원의 위상을 가졌다. 개경 연복사와 오층탑전의 전례에 준하여 사리탑전을 영조하여 1399년에 대장경을 봉안하였다.

태종대 1413년 대장경 인경은 1413년 3월 태종의 명으로 진행되었고, 태조의 재궁인 개경사에 봉안키 위한 것이었다. 태조의 5주기에 맞춰 개경사에 대장경을 봉안하고 대장경 전독 의례를 설행하여 명복을 기원하였다. 태종 13년 태조 재궁인 개경사에

*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

봉안한 대장경은 태종의 효행적 불사라는 성격 이외 조선 개창조에 대한 불교적 추숭이라는 성격을 가졌다.

세종대 1440년에 인경한 대장경은 흥천사의 사리탑전을 중창하고 봉안하였다. 이는 조선 태조가 창건한 '조종 창건 사원'인 흥천사의 사리탑전을 중창하면서 대장경을 봉안하여 불법 가피를 통한 왕실 祝釐와 국리민복을 기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고려대장경, 1393년 대장경 인경, 1399년 대장경 인경,
1413년 대장경 인경, 1440년 대장경 인경, 연복사, 흥천사, 개경사.

1. 머리말

고려 재조대장경은 13세기 조성된 이래 현재까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경은 약 20여 회이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의 인경은 전체 7회이지만 4회가 조선초기 태조-세종대에 이루어졌다. 조선초기 인경은 고려시대를 계승한 측면과 조선시대 인경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조선초기 대장경 인경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소략하여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고, 또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대장경의 인경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태조 2년 인경에 대해 주목하였는데, 이는 「인경발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태조 2년 인경에 대해 이능화는 태조가 해인사 고탑을 중창하고 대장경을 인경하여 봉안한 것으로 보았다.[1] 김영선은 태조 2년 인경의 발문이 원각판과 후각판이 있는 것에 주목하여 양본의 대교 및 분석을 통해 발문의 내용을 확정하는 한편, 후각판은 19세기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하였다.[2] 오용섭은 고려재조대장경의 후쇄에 대한 연구 가운데 간략히 언급하였고,[3] 이후 태조 이성계의 「인경발문」의 同願者 분석을 통해 태조 2년 인경을 검토하였다.[4] 여기에서는 「인경발문」의 원각본과 후각본을 대교・분석

1)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권상, 新文館 1918, 348면. 고탑의 유적은 十王殿 앞이라고 하였지만 근거는 미상이다. 후술하는 「인경발문」을 「願成大藏御製文」이라 칭하였고, 이를 해인사 고탑에 봉안한 것이라 기술하였다.

2) 김영선, 「海印寺 事蹟 刊本考」, 『서지학연구』 19, 한국서지학회, 2000.

3) 오용섭, 『고려신조대장경 후쇄고』,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4.

4) 오용섭, 「同願者로 본 태조2년 印經考」, 『서지학연구』 20, 한국서지학회, 2000.

하여, 발문은 태조 원년 11월 26일 이후 동왕 2년 6월 24일 이전에 작성되었고, 후각본 발문의 年紀 7월은 인경 발원시기로 추정하였다. 또한 태조 2년 인경은 태조 이하 동원자인 문신관료 대부분, 최측근 무신관료 등 공신 위주의 중앙관직자가 주축이 되었고, 환관이나 부인 그리고 지방수령이 지원하여 완성한 사업으로 보았다. 이상의 태조 2년 연구성과 이외에는 태조대에서 세종대까지의 불교 관련 연구에서 간략히 언급되는 데 그친다.

이상의 연구는 태조 2년 인경 분석이 중심이 되었고, 인경의 배경이나 목적, 그리고 과정이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지는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 위에 태조 2년『인경발문』과『조선왕조실록』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태조 2년, 정종 원년, 태종 13년, 세종 22년에 이루어진 대장경 인경 과정, 배경과 목적, 의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를 통하여 고려대장경 인경의 역사를 계기적으로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태조대 대장경 인경과 의의

1) 인경과정 및 봉안

태조 2년 대장경의 인경 전반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없어 분명치 않지만, 산견된 자료를 통해 그 과정 및 봉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첨서중추원사 정총에게 명하여 대장경을 인출하는 발원문을 찬진케 하였다.[5]
② 드디어 공사의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실로 임신년(1392) 12월이었다. 계유년(1393) 봄에 단청을 장식하였다. (…) 위에는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고 중간에는 대장경을 모셨으며, 아래에는 毘盧遮那의 초상을 안치하니, 국가를 복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만세에 길이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 여름 4월에 文殊會를 설행하여 낙성하였다.[6]

---

5)『태조실록』권2, 태조 원년 윤12월 4일 조, "庚辰 命僉書中樞院事鄭摠 製印出大藏經願文以進." 이하『조선왕조실록』의 원문과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https://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22.12.15.)

6) 權近,「演福寺塔重創記」,『陽村先生文集』권12, "乃告成 實壬申冬十有二月也 癸酉之春 塗堅丹雘 (…)

③ 연복사의 오층탑이 이루어졌으므로 文殊會의 설행을 명하고, 임금이 친히 거둥하여 自超의 禪說을 들었다.[7]

④ 연복사에서 반승하고, 대장경을 펼쳐서 읽게 하였는데, 왕사 自超가 講說을 주관하였다. 이보다 앞서 오층탑을 造營하여 대장경을 수장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落成하였다.[8]

위의 사료를 통해 인경 과정을 정리하면, 인용문 ①의 자료가 1393년 인경 과정과 관련한 첫 기록이다. 1392년 12월 태조는 첨서중추원사 정총에게 명하여 대장경을 인출하는 발원문을 찬진토록 하였다. 이 '印出大藏經願文'은 대장경의 인경에 즈음하여 제불에 기고하는 발원문이나 인경본에 첨부하는 발원의 내용을 포함하는 발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대장경 인경과 관련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인경 준비 등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경의 인경 이후 봉안에 대해서는 위의 자료 ②-④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료 ②는 권근이 지은 「연복사탑중창기」로 태조의 명에 의해 찬술한 것인데, 1392년 12월에 연복사탑의 중창을 완성하였고, 1393년 봄에는 단청하였는데, 이때 탑에 부처의 사리 및 대장경을 봉안하였으며, 4월에는 문수회를 설행하면서 낙성식을 거행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위의 인용자료 ③『태조실록』에는 1393년 3월 28일 오층탑전을 완성하여 문수회를 설행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태조가 중궁과 함께 4월 2일 문수회에 참여한 것으로[9] 미루어 낙성 문수회는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권근의 기록과『태조실록』의 기록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의『태조실록』자료 ④에서는 1393년 10월 17일 연복사에서 왕사 자초가 주관하는 대장경을 피람하는 대장경 전독 의례를 설행하였는데, 이보다

上安佛舍利 中庋大藏 下置毗盧佯象 所以資福邦家 永利萬世也 夏四月 設文殊會以落厥成." 이하,『양촌선생문집』의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검색일: 2022.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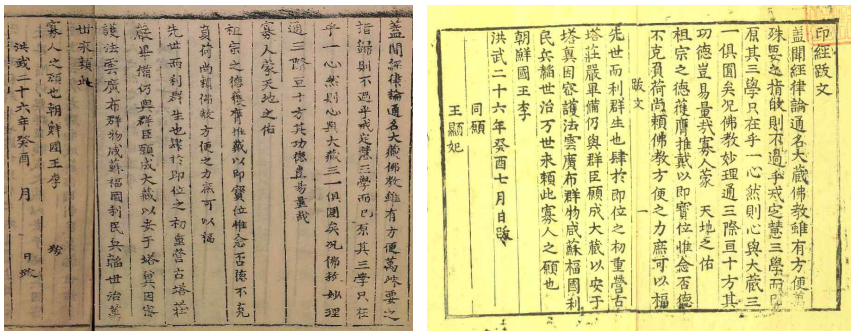
7)『태조실록』권3, 태조 2년 3월 28일 조, "演福寺五層塔成 命設文殊會 親幸聞自超說禪."

8)『태조실록』권4, 태조 2년 10월 17일 조, "飯僧于演福寺 披讀大藏經 以王師自超主講 先是 營五層塔藏大藏經 至是落之."

9)『태조실록』권3, 태조 2년 4월 2일 조, "上與中宮幸演福寺 觀文殊會."

앞서 오층탑전을 중창하여 대장경을 봉안한 뒤 지금 낙성식을 거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권근의 「연복사탑중창기」와 「태조실록」에는 낙성식이 4월과 10월로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때 연복사 오층탑전에 석가사리, 대장경, 비로자나불 초상 등의 봉안이 모두 완결된 낙성식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위의 자료 ④와 같이 대장경 전독 의례를 설행하면서 낙성되었다고하여 오층탑전은 완성되었지만, 대장경은 다소 늦게 봉안되었고, 이를 갖춘 낙성식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대장경 인경의 완료 시기와 그 인경본을 연복사 오층탑전에 봉안한 시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태조의 「인경발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393년 인경에 대해서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판각시기를 달리하는 「인경발문」 2종이 전하며,[10] 다음의 사진 자료와 같다.[11] 이하에서는 이 2종의 자료를 통해 인경 과정을 추가 검토키로 한다.



[그림 1] 1393년 태조 인경발문 (좌: 원각판 / 우: 재각판)

위의 [그림 1]과 같이 태조의 인경발문 말미에는 발문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재각판 「인경발문」에는 원각판에 없는 '印經跋文'이라는 제목과 '洪武二十六

10) 현재 대장경 인경발문은 1393년, 1458년, 1500년, 1865년, 1899년, 1915년 대장경 인경시 판각 자료가 확인되고, 이 가운데 원판의 훼손으로 재각한 목판은 1393년, 1458년, 1500년의 3종이며, 원판과 재각판이 해인사의 사간판고에 전존한다(김영선, 「海印寺 事蹟 刊本考」, 『서지학연구』 19, 한국서지학회, 2000).

11) 사진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제공되며, 「대장경인경발원문」은 『印成大藏經跋』, 「인경발문」은 『高麗大藏經跋文』에 수록되어있다(https://kabc.dongguk.edu/ 검색일 2022.12.15.)

年癸酉七月日跋'의 '七月'이라는 발문 찬술월이 추가 기록되어 있다. 이 재각판의 성립시기는 19세기로 추정되는데,[12] 재각판의 '七月'은 후대 기록자가 발문에 기록된 "즉위 초에 고탑을 중창하고 장엄을 모두 갖추어 군신과 더불어 대장경의 인성을 발원하여 봉안하였습니다."[13]라는 문구에 의거, 태조의 즉위 연월인 1392년 7월에 인경 발문을 찬술한 것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14]

그렇다면 이 「인경발문」은 언제 작성된 것일까. 이 발문은 태조가 정총에게 1392년 12월 4일 찬진을 명한 '印出大藏經願文'으로 추정된다. 대장경 인경 발문은 인경 완료의 시점이나 이를 상정하여 작성되므로 발문을 찬술하는 年月은 기록하지만 찬술일자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태조 인경 발문의 원각본에는 찬술월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발문의 찬술시 인경의 완료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태조가 정총에게 인경발원문의 찬진을 지시한 시기가 1392년 12월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뒤인 「인경발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홍무 26년 계유, 즉 1393년의 어느 시기에 찬술된 것이다. 이 「인경발문」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

[표 1] 1393년 「인경발문」의 구성과 내용

구분		내용	비고
발원		朝鮮國王 李 跋 / 洪武二十六年癸酉(1393)月日 跋	태조
同願	비 및 세자	王顯妃, 王世子	2명
	왕실	芳雨, 芳果, 芳毅, 芳幹, 芳遠, 芳蕃, 良祐, 李濟	8명
	신료, 부인	洪永通, 安宗源, 趙浚, 金士衡, 尹虎, 李和, 鄭道傳, 權仲和, 禹仁烈, 柳曼殊, 崔永沚, 金湊, 慶儀, 鄭熙啓, 李居仁, /李之蘭, 金立堅, 尹師德, 李恬, 鄭曜, 南誾, 趙琳, 趙胖, 張思吉,朴永忠, 黃希碩, 盧嵩, 韓尙質, 都興, 朴子安, 鄭摠, 趙琦, 朴宜中, 李茂, 柳爰廷, 金乙貴, 金豫, [趙仁沃],	84명 (관료 77, 부인 6, 승 敬南 1)

12) 김영선, 앞의 글, 2000, 343면.

13) 「印經跋文」, "肆於卽位之初 重營古塔 莊嚴畢備 仍與群臣 願成大藏 以安于塔."

14) 오용섭, 「同願者로 본 태조2년 印經考」, 『서지학연구』 20, 한국서지학회, 2000, 47-48면. 이 재각판의 '7월'이라는 기록은 인경을 발원한 시기이지 발문을 찬술한 시기는 아니며, 나아가 재각판은 원각본과 다른 저본, 혹은 '七月'의 手記가 있는 원각본을 보고 판각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15) 『印成大藏經跋』; 오용섭, 같은 글, 2000; 김영선, 앞의 글, 2000. 자료집을 토대로 논문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南在, 具成老, 郭忠輔, 李仁壽, 安景恭, 柳亮, 康舜龍, 成汝完, 李茂芳, 南乙蕃, 李崇, 金受益, 李稷, 李懃, 韓尚敬, 崔遠, 柳原之, 李得芬, 金師幸, 尹祥, 李匡, 曹恂, 金珧, 李忠, 孟天祿, 趙禾, 呂稱, 平海郡부인 黃氏, 樂安郡부인 金氏, 竹山郡부인 全氏, /光州郡부인 金氏, 羅州郡부인 吳氏, 金希善, 趙璞, 沈孝生, 柳珣, 李勒, 尹會宗, 李洽, 金潤德, 鄭淑道, 李虔, 趙湖, 敬南, 李宥, 星山郡부인 李氏	
棟梁		禪德 信源, 禪林寺住持 万雄, 香山中德 覺蘇, 志寶, 天珪, 信成, 願戒, 希志, 海樞, 志傳, 希全, 覺正, 志禪, 覺海 信宗, 達禪, 佛心, 宗淵, 信連	21명
합계			116명

위의 [표 1] 「인경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태조의 발원에 이어 동원자와 동량이 기명되어있다. 동원자는 다시 왕실, 관료, 여성, 기타로 구분된다. 왕실에서는 태조의 계비인 현비, 1392년 8월 세자로 책봉된 왕세자인 신덕왕후 소생 방석이 있다. 태조의 의지가 반영된 세자를 대외에 천명한 측면을 포함한다. 이어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번, 이양우, 이제 등 8명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불교계의 동원자는 해인사 주지 경남이 확인되고, 기타 棟梁으로 기록된 선덕, 신원 등 19인이 있다. 경남은 화엄종 소속으로 선교도총섭을 역임하였고 당시는 해인사 주지였다. 경남이 동원자에 기록된 것은 그가 해인사의 주지로서 인경의 총괄 책임자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동량에 이름을 올린 승려 가운데 天珪는 연복사 오층탑전 공역을 주관한 것으로 미루어 대장경 인경과 봉안에도 관여하였기 때문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태조의 왕사인 자초, 신미 등이 기록되지 않은 점, 성석린 등 주요 관료가 없는 점, 반불교 성향의 유학자 관료가 다수 포함된 점 등 향후 해명할 과제가 남아있다.

「인경발문」의 찬술 시기는 태조가 찬진을 명한 1392년 12월 이후, 연복사 오층탑전 대장경 봉안과 낙성식이 거행된 1393년 4월 또는 10월 17일 이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경발문」에 수록된 관직자의 官階 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392년 7월 28일 조선의 개창과 함께 대장경의 「인경발문」에 기록된 관료들에게 관직이 제수되었고, 이들의 관직은 인경과 봉안이

이루어지는 1393년 10월 이전까지 일부를 제외하면 官署의 이동이 있지만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 가운데 「인경발문」 작성시기의 상한과 하한을 확인할 수 있는 관직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인경발문」 수록 관직자의 관력 비교

인명	인경발문 관직	태조실록 기록 및 관직
尹虎	推忠協贊開國功臣崇祿大夫 判三司事同判都評議使司上將軍坡平君	1393.6.24. 사망 (判三司事)
金湊	崇政大夫藝文春秋館大學士 同判都評議使司事兼判司農寺	1393.2.11. 藝文春秋館大學士 1393.11.28. 左僕射
安景恭	推忠翊戴開國功臣嘉靖大夫 司憲府大司憲都評議使司事寶文閣學士	1393.2.11. 司憲府大司憲兼都評議使司使 1393.9.13. 全羅道 觀察黜陟使
柳亮	嘉靖大夫中樞院副使司事 兼工曹典書寶文閣學士	1393.2.11. 中樞院副使 1393.9.13. 交州江陵道 觀察黜陟使

「인경발문」 찬술의 상한을 살펴보면, 1393년 2월 11일에 김주・한상질・도흥・이무・남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고,[16] 이들의 관직과 「인경발문」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1393년 2월 11일에 위의 [표 2]에 해당하는 관직을 제수받았고, 「인경발문」과 일치한다. 또한 「인경발문」 찬술의 하한은 윤호가 사망한 1393년 6월 24일로 그가 사망하였다면 동원자로 기록될 수 없기 때문이다.[17] 따라서 「인경발문」의 찬자가 발문 동원자의 관직을 정확히 반영하여 기록하였다면, 1393년 2월 11일 이후 1393년 6월 24일 이전의 어느 시기에 찬술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1393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오층탑전 낙성의 문수회가 설행되었는데, 이때 대장경이 봉안되었다면, 1393년 2월 11일 이후 1393년 3월 28일 이전에 「인경발문」이 찬술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2월 11일 관직 임명자의 「인경발문」 동원자 반영 문제, 동한기인 1-2월 인경 문제, 「인경발문」을 판각하고 인출

16)『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2월 11일 조, "丙戌 以金湊爲藝文春秋館大學士 韓尙質僉書中樞院事 都興李茂 開城尹 柳亮 中樞院副使 南在 中樞院學士 安景恭 司憲府大司憲兼都評議使司使 朴信司憲侍史."
17)『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6월 24일 조 ; 오용섭, 앞의 논문, 2000.

하여 경전에 첩부하여 제본하고 장정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3-4월의 인경을 거쳐 10월 17일 이전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대장경의 인경 완료 시기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지만, 1392년 12월 발원문 찬진 명령 이후 1393년 2월 11일부터 1393년 6월 이전의 어느 시기에 인경 발문을 작성하였고, 대장경의 인경 역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완료하였을 것이다. 이 연복사 오층탑전 봉안 대장경의 규모는 분명치 않지만, 인경 소요 기간이 단기이고, 인경 부수를 특정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고려대장경 1,530종 6,555권[18] 1부를 봉안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9]

다음은 대장경 봉안과 함께 설행된 대장경 피람의 전독 의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검토한 권근의 「연복사중창기」 등의 기록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① 10월에 나라에서 대장경 轉藏 佛事를 演福寺에서 설행하고, 대사에게 主席을 명하였다.[20]

② 부처가 一音으로 설한 藏經은 1만 축이나 되고, 온갖 정무가 번다하여 소자는 하루의 여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튼튼히 하려면 반드시 부처님의 도움에 의빙해야 하겠기에, 곧 신하들과 함께 誓願하고서 오층탑전을 세워 옛터를 빛나게 했고, 1천함의 法文을 새겨 새로운 경전을 이룩하여 이미 정성껏 만들어 봉안하였습니다. 이제는 두루 읽어서 宣揚해야 하겠기에 비구들을 청하여 경전의 말씀을 읽게 하니, 입마다 法螺 소리가 우렁차서 十方에 떨치고, 마음마다 戒香의 냄새를 풍기어 三界에 가득합니다. 이처럼 공양하는 범절이 갖추어졌으니 그 공덕의 쓰임이 반드시 원만할 것입니다. 이 비용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라, 어찌 그 복을 저 혼자 독차지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밝은 거울로 널리 비추시어 혜택을 골고루 베풀어 주기 바랍니다. 위로는 선조를 천도하여 좋은 곳에 왕생하게 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에게까지 모두 즐거움을 주소서. 수하고 또 부하여 왕비와 함께 강녕하고, 성하고 또 번창하여 국가의 큰 복이 길이 뻗게 하며, 무기를 녹여서 농사의 기구를 만들고 예악을 진흥시켜 형벌을 거두게 하소서.[21]

---

18) 유부현, 「고려 재조대장경 경전의 종수와 권수」, 『서지학연구』 85, 한국서지학회, 2021, 68면.

19) 「啓下完文節目」, 『海印寺誌』, 가산문고, 1992, 75면. 1891년에 작성한 완문 절목에 인경 10건이라고 하였지만 근거는 미상이다.

20) 변계량, 「妙嚴尊者塔銘」(『동문선』 권121), "十月國設轉藏佛事於演福寺 命師主席 師自戊寅辭退之後 倦於待衆 雖以上命復住檜巖 旋入金剛山住眞佛菴."

『태조실록』과 위의 기록은 모두 1393년 10월의 연복사 대장경 전독 의례와 관련된 기록이다. 앞서 『태조실록』에는 연복사 탑전을 중창하여 대장경을 수장한 이후 시간이 경과한 10월 17일에 대장경 전독과 반승을 하면서 낙성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자료 ①은 변계량이 찬술한 묘엄존자 자초의 탑명으로 1393년 10월 연복사의 대장경 전장 의례를 주관한 내용이다. 『태조실록』의 1397년 10월 17일 기사인 연복사 반승 및 대장경 전독 의례 설행시 왕사 무학 자초가 강설을 주관하는 한편 왕명으로 연복사에 주석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자료 ②는 권근이 찬술한 「演福寺行大藏經披覽疏」인데, 연복사탑에 봉안한 대장경을 펼쳐보는 전독 의례의 소문에 해당한다. 이 피람소는 왕명으로 문한관인 권근이 찬술한 것으로 1397년 10월 17일 국가적 불교의례인 전장 의례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1393년 10월 연복사 대장경 전독 의례 기록을 종합하면, 이미 1393년 10월 17일 이전에 대장경은 봉안되었지만, 대장경 피람의 전독 의례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393년 10월 17일에 이르러 권근이 찬술한 「대장경피람소」를 갖추어 왕사 자초가 주관하여 국가적 불교의례를 설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복사 대장경 전장 의례 설행의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장경 전장은 이전 왕조인 고려시대에도 대장경 의례로 다수 설행되었다. 특히 대장경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개설하는 국가적 정기 불교 의례였다. 이 국가 불교의례에는 국왕 이하 백관, 불교계의 왕사 등 고승이 참석하며, 한림원의 문한관들이 지은 소문을 통해 국가의 안녕과 보호를 기원하였다.[22] 1393년에 인경된 대장경 역시 연복사에 봉안되어 국가불교의례인 대장경회로 전개되었고, 그 소문이 「演福寺行大藏經披覽疏」이다. 이 대장경 피람의 전장 의례는 국가의 공고함을 위해 불법의 加持에 의지할 것을 기원하였다. 또한, 부처의 밝은 거울로 널리 비추고 혜택을 입어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기원하였다.

한편 1393년에 인경한 대장경의 인경처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해인사에서 인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위 「인경발문」의 후반부에 전라도

21) 「演福寺行大藏經披覽疏」, 『陽村先生文集』 권28.
22) 박용진, 「고려대장경의 정치·사회적 기능과 의의」, 『동국사학』 59,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5.

안렴사・양광도안렴사・경상도안렴사・완산부윤・지합주사・남원부사・지초계군사・창녕감무・고령감무・온수감무・시흥역승, 그리고 해인사 주지 경남이 열기된 것에서 근거를 구할 수 있다. 인경의 공역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되는 합천・초계・고령 등 해인사 부근의 지방관뿐으로 강화 부근의 지방관 내지 경판 소재의 선원사 승려 등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고, 특히 해인사 주지를 기명한 것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23]

이상의 자료를 정리하면, 1392년 12월 태조의 대장경 인경 발원문을 찬진하라는 명령과 함께 인경 절차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지만, 본격적인 인출 작업은 12월부터 인경 물품을 준비하는 한편 동절기를 넘긴 1393년 춘기를 기다려 진행하여, 대략 1393년 2-6월 무렵에 발문을 갖추었고, 인경 역시 이즈음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문수회를 설행하면서 낙성식을 거행하는 한편 1393년 10월 17일에는 왕사 자초가 주관하는 국가적 불교의례인 대장경 피람의 전장 의례가 설행되었다. 이 대장경 의례는 고려 이래 춘추 2회 설행하는 대장경백고좌회의 전통을 인습한 것으로 추정된다.[24] 조선 개창과 함께 이루어진 국가불교의례에서 불력의 총체인 대장경의 이념을 광선 유포하는 한편 그 가피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 것이다.

2) 인경배경 및 목적, 의의

조선초기 태조 2년(1393)에 대장경의 인경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나 목적 등이 상세히 분석되지는 못하였다. 태조 2년 대장경 인경은 조선 개창과 함께 연복사 오층탑전의 중창과 연계하여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경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는 「인경발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소 길게 인용되지만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3) 고려대장경판 소장처에 대해서는 학계의 미해결 과제이다. 현재 태조 7년(1398) 강화 선원사에서 한양 지천사로 이치한 기록에 의거 견해는 분기한다. 강화도와 해인사 2본설, 해인사 일부 분치설, 1313-1381년 해인사 이치설 등이 있다. 고려 이색이 1381년 대장경 인경시 해인사에서 인출한 기록 등에 의거 일부라도 해인사에 경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24)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11일 조, "上下敎都堂曰春秋藏經百高座法席七所道場 考其始設之原以聞." 예조전서 趙璞 등이 상서하여 춘추의 장경백고좌회 등의 폐지를 청하자 도당에 하교한 것이다.

> 대개 들으니 경율론을 통칭하여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가르침은 비록 방편은 만가지로 다르지만, 그 지귀를 요약하면 계정혜 삼학에 불과할 뿐이고, 그 삼학의 근원은 단지 일심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음은 대장과 더불어 三一을 모두 원만히 갖추었습니다. 하물며 불교의 묘리는 삼세의 시방에 걸쳐 있으니 그 공덕을 어찌 쉽게 헤아리겠습니까. 과인은 천지의 도움과 조종의 덕을 입어 추대를 받아 보위에 올라 오직 덕이 없음을 염려하여 부담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불교의 방편지력을 받들고 의지하여 선세의 복과 군생의 이익을 희망하였더니, 드디어 즉위 초에 고탑을 중창하고 장엄을 모두 갖추어 군신과 더불어 대장경의 인성을 발원하여 봉안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은밀한 가호로 인해 법운이 광포되고 군물이 함께 깨어나 나라가 복되고 백성이 이로우며 병화가 없어지고 세상이 잘 다스려져 만세토록 길이 의뢰코자하니 이것이 과인의 소원입니다. 조선국왕 이 跋 홍무 26년 계유(1393) 월일 발[25]

태조 이성계는 조선 개국과 함께 연복사의 오층탑전을 중창하고 여기에 대장경을 봉안하였다. 인경의 배경으로는 우선 고려를 이어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라 부처의 가피를 바라면서 연복사의 오층탑전을 중창하고, 그 장엄을 위해 대장경을 인성하여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배경으로 이성계의 즉위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연복사 오층탑전의 중창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26]

연복사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919년 개경에 창건한 10대 국가 비보사원 가운데 하나인 大禪院 즉 廣通普濟寺가 원 사명이다. 이 보제사는 왕부의 남쪽 泰安門 안에 있었다. 正殿은 羅漢寶殿으로 극히 웅장하고 왕의 거처보다 컸다고 한다. 이 정전의 서쪽에는 탑을 오층으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2백 척이

---

25) 「印經跋文」, "盖聞經律論 通名大藏佛教 雖有方便萬殊 要之指歸則 不過乎戒定慧三學而已 原其三學 只在乎一心 然則心與大藏三一俱圓矣 況佛教妙理三際亘十方 其功德豈易量哉 寡人蒙天地佑 祖宗之德 獲膺推戴 以即寶位 惟念否德 不克負荷 尚賴佛教 方便之力 庶可以福 先世而利群生也 肆於即位之初 重營古塔 莊嚴畢備 仍與群臣 願成大藏 以安于塔 冀因密護 法雲廣布 群物咸蘇 福國利民 兵韜世治 萬世永賴 此寡人之願也 朝鮮國王李 跋 洪武二十六年癸酉 月日 跋."

26) 연복사 오층탑전 중창의 목적에 대해서는, 도선의 비보사찰에 의해 건립(황인규, 「麗末鮮初 演福寺塔 重營과 洛成」, 『동국역사교육』 7·8, 1999), 국리민복 내지 호국의 이념과 함께 왕실 주도의 불교행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진 연복사를 통해 수도 개성의 민심을 회유하고 왕실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목적(변광석, 신나경, 「조선시대 개성의 演福寺를 통해본 지역성 탐색」, 『역사와담론』 56, 호서사학회, 2010), 고려 이래 풍수지리와 비보사찰의 인식(김수연, 「고려시대 普濟寺(演福寺)의 佛事와 성격 변화」, 『梨花史學研究』 59, 이화사학연구소, 2019), 資福邦家 永利萬世(이봉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2015, 386면) 등의 견해가 있다. 또한 연구성과도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넘었다.[27] 이 광통보제사의 사명은 충렬왕 5년(1279)에 마지막으로 확인되며,[28] 이후 어느 시기에 연복사로 개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제사는 고려시대 선종의 주요 사원으로 廣明寺, 西普通寺와 함께 선종의 3대 사원이었다. 이 보제사에서는 五百羅漢齋와 반승, 문수회 등 정기적인 국가 불교의례가 설행되었고, 특히 고려 열성조가 궤범으로 한 3년 1회의 담선법회를 설행하여 국가를 진호하였다.[29] 이상과 같이 보제사에는 오층탑전이 있었지만 고려후기의 어느 시기에 이 탑이 파괴되었던 듯하다. 이와 관련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恭讓君이 장수와 재상의 힘을 입어 祖宗의 왕업을 회복하고 즉위한 뒤부터는 부처 섬기기를 더욱 힘쓰더니 이에 중 天珪 등에게 명하여 공인과 장인을 모집하여 공사를 일으키게 하였다. 신미년(1391) 2월에 일을 시작하였다. (…) 장차 준공하려 하는데 憲臣의 간언이 있어서 중지하려 하였다. 그때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모든 조정의 관원을 통솔하는 지위에 계시면서 공사의 준공을 청하였다. 오래지 않아 공양왕이 임금의 道를 실추하고 스스로 遜位하니 大命이 전하에게 모이었다. (…) 이에 공사를 더욱 부지런하게 독려하여 드디어 공사의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실로 임신년(1392) 12월이었다. 계유년(1393) 봄에 단청하였다. (…) 위에는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고 중간에는 대장경을 봉안하였으며, 아래에는 毘盧遮那의 초상을 안치하였으니, 邦家의 복을 빌고 만세에 길이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 4월에 文殊會를 설행하고 낙성하였다.[30]

연복사의 오층탑전이 황폐해진 이후 여러 차례 중창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려 공민왕 때에 조성하려 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하였고, 僧 長遠心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 또한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사』의 기록에는 1390년(공양왕 2) 1월 21일 연복사 승 법예의 청으로 조성도감을 두어 공사를 시작한 것이 확인된다.[31] 이와 달리 위의 권근의 「연복사탑중창기」에는 공양왕이 天珪 등에게 명하여 1391년 2월부터 중창을 시작한 것으로

---

27) 「廣通普濟寺」, 『高麗圖經』 권17.
28) 『고려사』 권63, 지 7, 오행 1, "忠烈王 五年 四月 庚子 震普濟寺."
29) 몽골 침입기에도 보제사의 위상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1251년 최항이 강화도에 보제사 별원을 세우고 구산문의 선려를 초집하였다(「曹溪山修禪社第五世 慈眞國師碑」, 『朝鮮金石總覽』 상, 595면).
30) 權近, 「演福寺塔重創記」, 『陽村先生文集』 권12.
31) 『고려사』 권45, 세가 권45, 공양왕 2년 1월 조.

기록하였다. 중창 공역의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지만, 공사 기간의 장기에 따른 기록의 차이로 추정되며 1390년 1월에는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연복사 오층탑전의 중창은 사헌부의 간언으로 일시 중지되기도 하였지만[32] 곧 재개되어 1392년 5월 13일에는 일단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3] 그렇지만 위의 권근의 「중창기」에는 태조의 조선 개창 이후 공사를 독려하여 1392년 12월에 완성되었고, 1393년 봄 단청을 거쳐 1393년 4월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이로 보아 연복사 오층탑전의 실제 완공은 조선 왕조의 개창 이후였고, 1392년 12월에는 탑에 봉안할 대장경의 인경을 발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복사 오층탑전의 중창은 공양왕대에 시작되어 중간에 중지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성계에 의해 공사가 지속되었고, 이는 조선 왕조 개창의 상징으로 전개되었다. 권근은 이 연복사 오층탑전 중창을 독려한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 인민과 사직을 주재하여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은혜롭게 하기 위한 정치를 도모하였다고 하였다. 그 방편인 불도의 자비로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므로 이에 숭상하는 불법을 지켜 폐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은 왕조 개창에 즈음하여 법을 세우고 후손을 위해 계책을 남겨 전하는 것인데, 바로 연복사 오층탑전을 중창하여 대장경을 봉안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이상의 배경 아래 전개된 연복사 오층탑전의 중창과 대장경 봉안은 그 목적이 위의 「인경발문」과 권근의 「중창기」에 잘 드러난다. 먼저 「중창기」의 말미에는 연복사 오층탑전 중창을 통해 인심과 천명을 힘입어 복택이 영원무궁하고, 행복이 끊임없이 이어져, 국가와 더불어 만세에 이르도록 공고하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인경발문」에서는 이성계의 개인적 신불에 그친 것이 아닌 군신과 함께 국가 창업의 공을 기리고, 불교의 방편 및 가피력에 의해 선세의 복과 군생의 이익을 기원하였다. 또한 대장경 인경에 의해 법운이 광포되고 군생이 소생하며, 국가가 복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한편, 병화가 종식되고, 세상이 잘 다스려져, 만세토록 길이 의지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

32) 『고려사』 권46, 세가 권46, 공양왕 3년 5월 조.
33) 『고려사』 권46, 세가 권46, 공양왕 4년 5월 조.

태조는 조선 왕조의 개창 이후 개경의 도성 내 연복사의 오층탑전을 중창하고, 그 탑전에 석가의 사리와 비로자나불의 초상을 비롯하여 군신들과 함께 대장경 인경을 발원하여 봉안하였다. 또한 왕사 자초를 연복사에 주석시켰다. 이렇듯 연복사는 조선 개국 초기 국가 주요 사원의 위상을 가졌다. 태조 2년 1393년의 대장경 인경은 최고 사원인 연복사의 오층탑전에 대장경을 봉안하여 태조의 조선 왕조 개창은 부처의 가피에 의한 것임과 나아가 불력에 의한 국가 영속의 기원을 담은 대장경 인경이라는 의의가 있다.

3. 정종-세종대 대장경 인경과 의의

1) 정종대 대장경 인경과 의의

태조 7년(1398) 8월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거쳐 실권을 장악하였고, 이해 9월에 태조는 세자 방과에게 전위하였다. 이렇게 즉위한 정종(재위 1398-1400)은 1400년 11월에 방원에게 선위하기까지 약 2년간 재위하였다. 정종대의 불교정책은 큰 변화가 없었고, 선위하고 상왕으로 있던 태조 이성계의 다양한 불사와 함께 대장경 인경의 기록이 확인된다. 이 대장경의 인경은 그 전말이 분명치 않고, 다만, 『정종실록』의 기사에서 인경을 확인할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 경상도 감사에게 명하여 불경을 인쇄하는 僧徒에게 해인사에서 供饋하게 하였다. 太上王이 사재로 대장경을 인쇄하여 만들고자 하니, 東北面에 저축한 콩과 조 5백 40석을 端州·吉州 두 고을 창고에 납입하게 하고, 해인사 근방 여러 고을의 米豆와 그 수량대로 바꾸게 하였다.[34]

정종 1년(1399)에 이뤄진 인경은 상왕 즉, 태조 이성계의 발원과 개인 사재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때의 인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원문이나 발문이 확인되지 않아 인경 규모는 분명치 않지만, 콩과 조 5백 40석을

34) 『정종실록』 권1, 정종 1년 1월 9일 조.

인경 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인경비용에 충당한 곡물은 이성계의 거점이었던 동북면에 비축하였던 것으로 동북면의 단주와 길주의 州倉에 납입하고, 그와 동등한 가치의 미곡을 해인사가 소속된 여러 군현에서 대체하여 인경 비용으로 하였다. 또한 해인사에서 장경을 인출하는 승도에 대해서는 경상도 감사를 통해 해인사에서 供饋토록 하였다. 인경 비용은 태조의 사재로 충당되었지만,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출하는 승도에 대한 지원은 경상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듯 정종대 1399년의 인경은 상왕인 태조 이성계의 발원에 의하였고, 그 소요 비용은 태조의 사재를 근간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인사 승도를 공궤하기 위해 경상도, 즉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35]

한편 1399년 대장경 인경의 배경이나 인경본의 봉안처 등에 대해서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시기 태조의 주요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 禪宗에서 禮曹에 보고하기를, "本寺의 舍利塔殿은 太祖께서 창건하신 것인데, 체제가 높고 우뚝하기 때문에, 무인년에 창건한 이후로 두 번이나 일으켜 바루었으나, 날로 점점 기울고 위태하여지니, 만일 무너진다면 석탑이 염려되옵니다. 청하옵건대, 탑전을 헐고 거기에 모셔 둔 대장경은 새로 別殿 대여섯 칸을 석탑 앞에 세워서 옮겨 두면, 거의 석탑도 완고할 것이요, 聖祖의 發願하신 뜻도 무궁하게 전할 것입니다.[36]

위의 자료는 1435년(세종 17) 흥천사 사리탑전의 중창과 관련된 기록인데, 무인년 즉, 1398년(태조 7)에 흥천사의 사리탑전을 창건하였고,[37] 이 탑전에 대장경이 봉안되어 1435년까지 전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 흥천사 사리탑전에 봉안된 대장경이 정종대 1399년에 인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흥천사는 1396년(태조 5) 8월 태조의 계비 顯妃 康氏가 사망하자 정릉을 조영하여 안장한 뒤 능 동쪽에 명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세운 사찰이다. 흥천사의

---

35) 한편 『海印寺誌』에는 태조가 죽은 부마와 충신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근거는 분명치 않다(李智冠編著, 『海印寺誌』, 가산문고, 1992, 225면).
36)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5월 21일 조.
37)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5월 1일 조, "丁未朔 上如興天寺 命營舍利殿三層于寺北."

공역은 1397년 1월 3일 신덕왕후 안장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니, 1396년(태조 5) 12월 1일 태조가 흥천사에 행차하여 공역자들에게 주식을 내려 공사를 독려한 일에서도[38] 알 수 있다. 흥천사의 완공은 1397년(태조 6) 10월 16일 흥천사에서 양재법석을 설행하였고,[39] 11월에는 태조가 흥천사에 행행한 일로[40] 미루어 이를 전후한 시기에 일단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태조는 흥천사 창건 이후 부친인 환조의 신어를 계성전에 봉안하였다.[41] 결국 흥천사는 선초 환조의 진전 사원이자 신덕왕후 정릉의 원당으로 기능한 왕실의 주요 사원이 되었다.[42]

또한, 흥천사 사리탑전의 영조는 흥천사를 낙성한 이후 1398년(태조 7) 5월 1일 태조의 명으로 시작되었다.[43] 이후 태조가 정종에게 선위한 뒤인 1399년(정종 1) 10월 19일에 사리탑전의 낙성이 확인된다.[44] 이 사리탑전은 개성 연복사 오층탑전의 건립 이념을 계승하여 3층의 사리탑과 오층의 탑전을 영조한 것으로[45] 석가사리와 함께 대장경을 봉안하였다.[46] 1399년 1월 9일 정종은 경상도 감사에게 해인사에서 불경을 인쇄하는 승도를 供饋하게 하는

38)『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1일 조, "丙戌 上幸興天寺 命餉工役."
39)『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0월 16일 조, "遣商議中樞院事崔龍蘇於興天寺 設禳災法席."
40)『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1월 15일 조.
41)『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1월 24일 조, "開國之初 祖聖創立本寺 奉安啓聖殿神御."
42) 흥천사 창건 목적에 대한 견해로는, 정릉 원찰 이외 태조의 개인적인 好佛 여부에서 나아가 근본적이고 보편적 계기에서 이해할 필요(한우근, 「麗末鮮初의 佛敎政策」, 『서울대 논문집』 6, 서울대, 1957), 태조의 불력 가호와 불교 신앙(김용국, 「서울정도초기의 불사창건」, 『향토서울』 5,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59), 불법의 광포와 국리민복(이봉춘, 「조선 개국초의 排佛推進과 그 실제」, 『韓國佛敎學』 15, 한국불교학회, 1990), 사리탑전의 건립은 선종 修禪 본사 입지 제고(윤정, 「太祖代 貞陵 건설의 정치사적 의미」, 『서울학연구』 37,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9), 사리전 조영은 왕조 창업 공간 한양의 법궁 경복궁이 보이는 곳에 흥천사를 건설하여 현실적 신앙인 불교를 인정하고, 불교 세력 통합 수단(백순천, 「朝鮮初期 興天寺의 造營과 役割」,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1; 문무왕, 「흥천사의 역사와 사상」, 『강좌미술사』 53,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9), 환조 진전사원(강호선, 「개경과 한양의 사찰」, 『역사와 현실』 125, 한국역사연구회, 2022) 등이 있다.
43)『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5월 1일 조, "丁未朔 上如興天寺 命營舍利殿三層于寺北."
44)『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10월 19일 조, "太上王幸新都 爲興天社之舍利殿落成也."
45)『중종실록』 권10, 중종 5년 3월 28일 조, "是夜貞陵寺 五層舍利閣災."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경도 한성부, "興天寺 在皇華坊 屬禪宗 寺有三層塔 安釋迦如來舍利 乃太祖所建 給田二百五十結."
46)『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9월 1일 조, "諺傳釋迦在世時 齒上所生 新羅僧慈藏入西域見文殊 得此而還 置于慶尙道 通道寺 歲丙子 我康獻王取置於此." 이 기록에 의거 1396년 통도사에서 옮겨 이후 흥천사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미 사리탑전 건립도 계획된 것으로 추정된다(김버들・조정식, 「조선초기 受禪本寺 興天寺 사리각 영건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24-1,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

한편 인경 비용에 해당하는 곡물을 동북면 주창에 납입하고, 이를 해인사 인근 주창에서 환급토록 하였다. 이는 상왕 태조가 발원하여 흥천사 사리탑전에 봉안키 위한 대장경의 인경으로 추정되며, 왕명에 의한 국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대장경의 인경은 1399년 1월 9일 바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인쇄 용품을 준비한 뒤 동한기를 지난 춘기에 이루어졌고, 1399년 10월 19일 사리탑전의 낙성을 전후하여 탑전 내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흥천사에서는 사리탑전에 봉안한 대장경을 활용한 대장경 의례를 설행하기도 하였다.[47]

정종 1년 1399년에 태조 발원 흥천사 사리탑전 봉안용 대장경 인경은 상왕인 태조의 사재를 근간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인사 승도를 공궤하기 위해 경상도, 즉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태조는 계비 신덕왕후 정릉의 원당인 흥천사를 창건한 뒤 사리탑전을 영조하여 대장경을 봉안하였으며 부친 환조의 신어를 계성전에 봉안하였다. 결국 조선 개국 초 개경 최고 사원인 연복사 오층탑전의 건립에 이어 새롭게 전개되는 조선 신도 한양 도성 내에 흥천사와 사리탑전을 창건하면서 대장경을 봉안하여 불법 가피를 통한 왕실 祝釐와 '聖祖願意' 즉 국리민복을 기원한 것이 그 특징이자 의의로 지적할 수 있다.

2) 태종대 대장경 인경과 의의

태조의 1393년 연복사 오층탑전 봉안용 대장경 인경과 1399년 태조 발원 흥천사 사리탑전 봉안용 대장경 인경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대장경 인경 이후 14년이 지난 태종 대에 인경이 확인된다. 이 태종 대 대장경 인경은 1413년(태종 13) 3월에 이루어졌는데, 『태종실록』에 간략히 기록되어 있으니 다음과 같다.

①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경하도록 명하였다. 풍해·경기·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그 도에서 만든 經紙 2백 67束을 경상도에 遞輸하게 하고, 또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체수한 경지를 해인사로 轉輸하여 대장경을

47)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윤3월 1일 조, "太上之行 欲設大藏佛事於興天寺也."

인행함이 옳으나, 그 인출할 때에 諸緣과 중 2백 명에게도 朔料를 모두 지급토록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태조가 부처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開慶寺를 세우고, 또 대장경을 인출하여 여기에 안치하기 위함이었다.[48]

② 대장경을 개경사에 수송하였다. 이 앞서 승도 2백 명을 모아 資糧을 주어 합주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수송하여 개경사에 가져다 간직하니, 태조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다.[49]

③ 개경사에서 법석을 설행하고 대장경을 전독하였다.[50]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대장경 인경 전반을 개관하면, 태종은 1413년(태종 13) 3월 11일에 대장경의 인경을 명하였다. 이 인경은 태종이 태조가 불교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선왕을 위해 일찍이 개경사를 세웠는데 여기에 봉안키 위한 것이었다. 인경의 주관은 경상도 관찰사였고, 소요 인경지는 풍해·경기·충청도 관찰사에게 인경지 각 267속을 분담 제지하여 체수케 하였다.[51] 또한, 왕명으로 경상도 관찰사에게 체수한 인경지를 해인사로 전수하여 인경토록 하였다. 이때 인출에 종사하는 승려를 포함 인원 2백여 명에게도 삭료를 지급토록 하였다.

한편, 1413년(태종 13) 5월 28일 대장경의 인경이 종료하자 이를 해인사에서 개경사로 수송하였다. 인경 과정 전반은 분명치 않지만, 인경을 위해 해인사 승도 2백여 명을 동원하였고, 왕명으로부터 봉안까지는 3월 11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2개월 17일이 소요되었다. 대장경 1부를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3월 11일 왕명 이후 전반적인 준비를 거쳐 인경을 시작하였고, 인출 완료 후 제본 및 장식을 완성하여 5월 28일 개경사에 봉안하였다. 이 대장경은 개경사에 봉안하여 태조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인경되었다. 태조는 1408년(태종 8) 5월 24일 사망하였기 때문에 기일에 맞춰 불전의

48)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3월 11일 조, "命印大藏經于海印寺 傳旨于豊海京畿忠淸道觀察使, 遞輸其道所造經紙二百六十七束于慶尙道 又傳旨于慶尙道觀察使曰 今遞輸經紙, 宜轉輸于海印寺, 印大藏經 其印出時諸緣及僧二百朔料, 竝皆給之 上以太祖好佛 曾建開慶寺 又印大藏經以安之也."

49)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5월 28일 조.

50)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5월 19일 조.

51) 인경부수와 관련이 있는데, 3개도에서 2백67束을 제지하여 체수하였으므로 전체 801속이다. 『대장목록』에 기록된 인경 소요 牒張數는 154,402장이다. 『대장목록』에 기록된 입지수의 '牒'은 '軸', '束', '卷'으로 1束은 20장이며, 801속은 16,020장에 해당한다. 이 기록의 인경지가 전체인지의 여부, 1束의 단위 등이 선결 과제이다.

총집인 대장경 1부를 봉안하여 추도한 것이다. 이듬해 1414년(태종 14) 5월 19일에는 개경사에서 법석을 열어 대장경을 전독하였다. 이 또한 태조의 기일에 맞춘 추도 목적의 대장경 전장 의례로 추정된다.

이상의 대장경 인경과 관련하여 태조와의 관련성이나 봉안 사원 개경사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태조는 1408년 5월 24일 사망하였다. 태조의 산릉은 양주 검암, 즉 현재의 경기도 구리시로 정해졌고, 태종은 1408년(태종 8년) 7월 태조의 山陵 齋宮에 개경사라는 사명을 하사하였다.[52] 이후 의정부의 계문에 따라 신창한 개경사를 조계종에 속하게 하고, 노비 150구와 전지 3백 결을 정속시켰다. 이는 개경사에 노비와 전지를 정속시켜 태조의 원당으로 운영토록 한 것이다. 이 개경사에 태조의 5주기에 맞춰 대장경을 봉안하고 대장경 전독 의례를 설행하여 태조의 명복을 기원하였다. 또한, 개경사에는 관음전을 능 옆에 창건하는 한편 『법화경』을 금자로 사경하고, 관음전에서 법화법석을 설행하여 태조의 명복을 기원하였다.[53]

한편, 태종대에는 대장경 인경에 준하는 『대반야바라밀다경』(이하, 『대반야경』)의 인경을 살펴볼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 ④ 이 『대반야바라밀다경』은 우리 太上王殿下께서 발원하여 이룬 것으로 이미 인출을 완료하고 장황을 마쳤습니다, 신 近에게 傳旨를 내려 이르기를, "내가 祖宗의 적덕과 佛天의 은밀한 도움을 힘입어 나라를 창건하여 길이 統緖를 전하게 되었으나, 이제 연로하여 중한 책임을 벗고 오직 전심으로 부처를 섬기며 아침저녁으로 頂禮하여, 위로는 조종의 중한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나라의 영원한 안녕을 바라며, 전날의 죄과를 씻고 장래의 덕이 될 근본을 심으려 할 뿐이다. 『대반야경』은 뜻이 宏博하여 다른 經에 비해 가장 훌륭하며, 幽明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으로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私帑을 희사하여 이 경을 인출케 하였다. 원컨대 선대의 祖宗考妣와 먼저 죽은 子壻眷屬과 모든 法界含靈까지 勝緣을 의지하여 般若船을 타고서 正覺岸에 이르며, 三寶가 길이 흥왕하고 法輪이 항상 굴러서 싸움이 영원히 없어지고 국운이 길이 태평하며, 생전에는 壽福을 더하고 마침내 涅槃을 증득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 병술년 6월 일[54]

52)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7월 29일 조. 禹貞相, 「開慶寺考」, 『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 동국대 사학회, 1960. 국행법회와 고려대장경 봉안 등 호국도량의 성격을 지적하였다.
53) 卞季良, 「開慶寺觀音殿行法華法席疏」(『동문선』 제113권).

태조 이성계는 태상왕으로 있으면서 1406년(태종 6) 6월에 해인사 전존 고려대장경에 입장된 경전으로 추정되는『대반야경』을 인경하였다. 인경 이후 봉안처는 분명치 않지만, 같은 해 6월 태상왕의 거처인 덕수궁에서[55] 회암사로 행행한 뒤『대반야경』을 이치하려 한 일이 있었는데,[56] 위의 권근이 찬술한「대반야경발문」은 이『대반야경』인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발문에서 국가의 창업은 조종의 덕과 불천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태상왕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조석으로 정례하고 전심으로 사불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선대의 조종고비, 먼저 사망한 자서권속을 비롯 법계함령이 정각안의 정토에 이르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불법 흥륭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국운이 태평하기를 기원하였다.[57] 이는 사망한 부모 및 자서권속의 追善 등 태조의 불교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과 조선 왕조 개창자로서 복국이민을 기원한 측면을 포함한다.

1413년(태종 13)에 개경사에 봉안한 대장경의 인경 특징과 의의를『대반야경』의 인경 사례를 포함하여 정리하면, 태조가 태상왕으로 있던 시기에는 정종대 대장경 인경의 사례와 같이 사적 발원에 의한 인경도 있었지만, 태종 6년『대반야경』인경은 불교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측면과 조선 왕조 개창자로서의 복국위민을 함께 발원한 중층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태종 13년의 태조 건원릉의 재궁 개경사에 봉안한 대장경은 태종이 부왕을 위한 효행적 불사로서의 성격을 가졌다.[58] 조선초기 태조 이래 태종대까지의 대장경 인경은 모두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점에 특징이 있고 개인 신앙적 측면과 복국이민을 기원하는 양측성을 가졌다.

---

54)「大般若經跋」,『陽村先生文集』권22.
55)『태종실록』권11, 6년 6월 15일 조.
56)『태종실록』권11, 6년 6월 조, "太上王欲幸檜巖寺 移置般若經."
57) 이봉춘,『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2015, 99면에서 태조의 신불은 유위의 공덕 및 복국이민을 기원하는데 그친 가장 현실적 신불의 성향이지만, 태조의 불사추진의 명분이 되었고, 정종대-태종대 영향력을 미쳐 억불의 여론 속에 선초불교가 고려대 불교의 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58) 이봉춘, 같은 책, 133면.

3) 세종대 대장경 인경과 의의

태종대 1413년(태종 13) 개경사 봉안을 위한 대장경을 인경한 이후 새로운 인경은 확인되지 않고, 26년이 경과한 1439년(세종 21)에 인경 관련 기록이 보인다. 세종대 대장경 인경 역시 인경 발문 등 관련 기록이 전하지 않아 전반적인 과정은 분명치 않은데, 『세종실록』에서 간략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검토한다.

① 禪宗이 禮曹에 보고하기를, "本寺의 舍利塔殿은 태조께서 창건하신 것인데, 체제가 높고 우뚝하므로 무인년에 창건한 이후로 두 번이나 일으켜 바루었으나 날로 점점 기울고 위태하여지니 만일 무너진다면 석탑이 염려되옵니다. 청하옵건대, 탑전을 헐고 거기에 모셔 둔 대장경은 새로 別殿 5, 6간을 석탑 앞에 세워서 옮겨 두면, 거의 석탑도 완고할 것이요, 聖祖의 發願하신 뜻도 무궁하게 전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예조에서 이에 의해 아뢰기를, "개국하던 처음에 전각을 창건하였는데, 연대가 오래지 않아서 두 번이나 수리하였으나 오히려 기울고 위태하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마땅히 呈狀의 내용에 의하여 탑전은 헐고 따로 새 전각을 세우되, 또 그 공사가 다른 營繕의 비교가 아니오니, 청하옵건대, 도첩을 주어서 승도를 불러 모아 관가에서 식량을 주고, 따로 提調를 정하여 營造를 감독하게 하고, 別殿의 체제와 공사하는 승도의 수효는 주관하는 繕工監으로 하여금 磨勘하여 아뢰게 하소서."라고 함에 그대로 따랐다.[59]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장경의 인경은 흥천사 사리탑전의 중창과 관련이 있다. 흥천사는 태조가 1398년 정릉의 재암으로 창건하였고 이와 함께 사리탑전을 조영하였다. 이 사리탑전은 1435년(세종 17)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리하였으나 다시 기울어 위태롭게 되자 당시 선종의 도회소인 흥천사에서 중창을 상주하였다. 이에 세종은 예조의 청에 따라 선공감이 주관이 되어 사리탑전을 헐어 새로 전각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이 사리탑전에는 앞에서 살펴본 정종 1년(1399)에 태조가 발원하여 인경한 대장경이 봉안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세종은 1435년 5월 21일 이후 사리탑전을 중창토록 하는 가운데 새로 대장경을 인경하여 흥천사의 사리탑전에 봉안토록 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59)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5월 21일 조.

이러한 새로운 대장경의 인경과 관련된 일은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② 신 등은 또 듣건대, 장차 대장경을 인경하여 흥천사에 안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緣化하는 무리들이 드디어 勸文을 만들어서 懿親에게 署名을 받아서는 각도에 나누어 가서 종이를 뜨고 먹을 만들면서 민간을 소란하게 하여 피해가 매우 심하다고 하옵니다. 대장경은 예전에 인경한 것도 적지 아니하온데 어찌 비용을 허비하여 쓸데없는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하물며 인경을 금하는 법이 元典에 실려 있습니다.60)

③ 대장경을 인쇄하는 일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를 명하였다. 대간에서 청한 말을 좇은 것이었다.61)

④ 전일에 聖上께서 사리각은 태조께서 창건한 것이니, 그 기울어져 무너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고 하시어 수리하도록 명하시더니, 지금은 또 중들을 시켜 대장경을 새로 인쇄하여 흥천사로 실어 나르십니다.62)

⑤ 지난해에 흥천사는 조종께서 창건한 것이라고 이르시고, 사리각을 중수하여 대장경을 간직하고, 이제 경찬회를 베풀어 披覽하고자 하여 緇徒를 크게 모으고 불사를 성대히 베푼다고 하오니, (…) 생각건대 우리 태조 강헌 대왕께서는 비록 흥천사를 창건하였사오나, 본래 정릉을 위하는 齋菴으로 설치한 것이옵고, 부처를 숭상하기 위하여 그리 한 것이 아니옵니다.63)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장경 인경의 목적은 흥천사에 안치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흥천사에서도 인경 경비를 모연하였는데, 연화하는 화주승이 권선문을 만들어 왕실의 懿親들에게 서명을 받는 한편 각 도에서 종이와 먹 등 인경 소요 물자를 시주받았다. 흥천사의 화주승들이 권선문을 만들어 왕실에 인경 비용을 시재한다는 서명을 받는 한편 여러 도에 나아가 권선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장경 인경은 원활치 않았던 듯하다. 대간은 지속하여 인경 불요론을 제기하였고 1439년(세종 21) 4월 24일부터 인경이 일시 중지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해를 넘긴 1440년 3월부터 9월 사이의 어느 시기에는 다시 인경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경이 완료된 이후 1440년 9월에는 해인사에서

60)『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4월 22일 조.
61)『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4월 24일 조.
62)『세종실록』 권90, 세종 22년 9월 13일 조.
63)『세종실록』 권94, 세종 23년 윤11월 18일 조.

흥천사로 봉송되었다. 흥천사 사리각 중수의 낙성은 1441년 11월이며, 이때 경찬회를 베푸는 한편 대장경 피람 즉 대장경 전독 의례가 설행되었다.

흥천사 사리탑전 봉안용 대장경 인경의 의의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흥천사는 1397년(태조 6) 신덕왕후의 원당으로 창건하여 사리탑전을 세우면서 1399년에는 대장경을 봉안하였고 이후 진전사원이자 원당으로 기능하였다.[64] 이어 1424년(세종 6) 불교 통폐합시에는 선종의 도회소로서 도성 내에 위치한 선종 최고 사원의 위상을 가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루어진 대장경의 인경은 흥천사 사리탑전의 수리와 함께 그곳에 봉안하기 위한 것으로 선종의 도회소인 흥천사의 상주와 예조의 청에 의해 세종의 명으로 이루어졌다. 세종은 '조종 창건 사원'이라는 명분 아래 흥천사의 사리탑전에 대장경을 봉안하여 불법 가피를 통한 왕실 祝釐와 함께 태조가 발원한 국리민복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조선왕조실록』 기사에서 대장경 인경은 대간의 반대에 직면하였음을 볼 수 있다. 대간은 세종의 인경 불사에 대해 국가의 비용을 허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으로 금하는 일임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 일은 표면적으로는 대장경 인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간으로 대표되는 유신의 배불과 세종의 불교계 지원이 대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종은 태조의 '聖祖願意'를 계승하는 '조종 존숭'의 명분을 들어 불교계를 지원한 불사가 바로 이 대장경 인경이었다.

4. 맺음말

고려 재조대장경은 13세기 조성된 이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경은 약 20여 회이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는 전체 7회이지만 4회가 조선초기인 태조-세종대에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관련 제기록의 검토를 통해, 조선초기 태조-세종대 인경의 배경과 목적, 내용과 의의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키로 한다.

---

64) 김용국, 「서울정도 초기의 불사창건」, 『향토서울』 5,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59, 63면. 태조, 태종, 세종이 흥천사 사리탑전을 중요시한 이유는 석가사리와 진병 호국의 대장경 봉안을 들었다.

태조대 인경본은 1393년 개경 연복사 오층탑전에 봉안되었다. 1392년 12월 태조가 대장경 인경 발원문을 찬진하라는 명령과 함께 인경 절차가 진행되었고, 본격적인 인출 작업은 12월부터 인경 물품을 준비하는 한편 동절기를 넘긴 1393년 춘기를 기다려 진행하였고, 1393년 3-6월 무렵에 인경을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1393년 봄에 단청을 마친 연복사 오층탑에 대장경을 봉안하고, 문수회를 설행하면서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1393년 10월 17일에는 왕사 자초가 주관하는 국가적 불교의례인 대장경 피람의 전독 의례가 설행되었다.

인경 배경과 목적은 「인경발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태조 이성계는 연복사의 오층탑전을 중창하면서 군신들과 함께 대장경 인경을 발원하여 봉안하였다. 대장경을 연복사에 봉안한 것은 고려 개창 이래 개경 도성 내 주요 사원인 연복사의 오층탑전을 중수하여, 조선 창업이 불교의 가호에 있었음을 선양키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태조 이성계의 개인적 신불이외 군신과 함께 국가 창업의 공을 기리고, 불력에 의해 국가와 백성의 복리를 비는 한편, 병화의 종식과 선정을 통해 국가 영세를 기원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정종대 1399년 대장경 인경은 상왕인 태조 이성계의 발원에 의해 사재를 근간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인사 승도를 공궤하기 위해 경상도, 즉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399년 대장경의 인경은 조선 신도 한양의 흥천사 사리탑전에 봉안키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장경의 인경은 1399년 1월 9일 바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인쇄 용품을 준비한 뒤 동한기를 지난 춘기에 이루어졌고, 1399년 10월 19일 사리탑전의 낙성을 전후하여 탑전 내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흥천사에서는 사리탑전에 봉안한 대장경을 활용한 대장경 의례를 설행하였다. 조선 개국 초 태조는 개경 최고 사원인 연복사 오층탑전의 건립에 이어 새롭게 전개되는 조선 신도 한양 도성 내에 흥천사와 사리탑전을 창건하면서 대장경을 봉안하여 불법 가피를 통한 왕실 祝釐와 국리민복을 기원하였다.

태종대 1413년 대장경 인경은 1413년(태종 13) 3월 태종의 명으로 진행

되었다. 이 인경은 태종이 태조 능의 재궁인 開慶寺에 봉안키 위한 것이었다. 이 인경의 주관은 경상도 관찰사였고, 풍해・경기・충청도 관찰사에게 인경지를 분담하여 공급토록 하였다. 대장경의 인경이 종료하자 해인사에서 개경사로 이송하였으며, 개경사에서는 대장경 불교의례를 설행하고, 대장경을 전독하였다. 대장경을 봉안한 개경사는 태종이 태조 산릉의 재궁을 개경사라 사명한 것에서 비롯한다. 이 개경사에는 태조의 5주기에 맞춰 대장경을 봉안하고 대장경 전독 의례를 설행하여 태조의 명복을 기원하였다. 또한, 개경사에서는 관음전을 능 옆에 창건하는 한편 『법화경』을 금자로 사경하고, 관음전에서 법화법석을 설행하여 태조의 명복을 기원하였다. 한편 태종대 태조가 태상왕으로 있던 시기에는 정종대 대장경 인경의 사례와 같이 사적 발원에 의한 인경도 있었지만, 태종 6년 『대반야경』 인경은 불교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측면과 조선 왕조 개창자로서의 福國利民을 함께 발원한 중층적 성격을 갖는다. 태종 13년에 태조 건원릉의 재궁인 개경사에 봉안한 대장경은 태종의 효행적 불사라는 성격 이외 조선 왕조 개창조에 대한 불교적 추숭이라는 성격을 가졌다.

세종대 1440년에 인경한 대장경은 태조가 정릉의 재궁으로 창건한 흥천사의 사리탑전을 중창하고 그곳에 봉안하였다. 세종이 대장경을 인경하여 흥천사에 봉안토록 명하였고, 이와 함께 흥천사에서도 인경 경비를 모연하였는데, 권선문을 만들어 왕실 구성원들에게 인경 소요 비용을 위한 시재자 서명을 받아 전국으로 권선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장경 인경은 원활치 않았던 듯한데, 대간에서 인경 불요론을 제기하였고, 1439년(세종 21) 4월 24일부터 인경불사는 일시 중지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해를 넘긴 1440년 3월부터 9월 사이의 어느 시기에는 인경이 재차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경이 완료된 이후 1440년 9월에는 승려들에 의해 해인사에서 흥천사로 봉송되었다. 흥천사 사리탑전 중수의 낙성은 1441년 11월이며, 이때 경찬회를 베푸는 한편 대장경 피람 즉 대장경 전독 의례가 설행된 것으로 보인다.

흥천사는 1397년(태조 6) 태조가 신덕왕후의 원당으로 창건하여 흥천사로 명하는 한편 사리탑전을 영조하여 1399년에 대장경을 봉안한 바 있고, 세종

대에는 선종의 도회소로 지정되면서 도성에 있는 선종 최고 사원의 위상을 가졌다. 세종은 흥천사의 사리탑전을 중창하는 한편 대장경을 인경하여 봉안하였는데, 이는 조선 왕조의 개창조인 태조가 창건한 흥천사의 건립이념을 계승한 것이었다. 태조의 '聖祖願意'를 계승하는 '조종 존숭'의 명분을 들어 흥천사의 사리탑전을 중창하면서 대장경을 봉안하여 불법 가피를 통한 왕실 祝釐와 국리민복를 기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초기 태조에서 세종대까지의 대장경 인경은 모두 태조를 표방하고 계승하였으며, 개인 신앙적 측면과 복국이민을 기원하는 양측적 성격을 가졌다. 특히 대장경을 봉안하여 불법 가피를 통한 왕실 祝釐와 국리민복를 기원하였는데, 이는 고려불교의 계승과 전개라는 측면과 조선초기 불교 변용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토 과제이다. 본고를 통해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판의 인경의 시대성과 역사성을 계기적으로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高麗大藏經跋文』
『高麗圖經』
『高麗史』
『東文選』
『陽村先生文集』
『印成大藏經跋』
『朝鮮金石總覽』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中宗實錄』

강호선, 「개경과 한양의 사찰」, 『역사와 현실』 125, 한국역사연구회, 2022, 65-101면.
김수연, 「고려시대 普濟寺(演福寺)의 佛事와 성격 변화」, 『梨花史學硏究』 59, 이화사학연구소, 2019, 159-194면.
김영선, 「海印寺 事蹟 刊本考」, 『서지학연구』 19, 한국서지학회, 2000, 152-165면.
김용국, 「서울정도초기의 불사창건」, 『향토서울』 5,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59, 45-90면.
문무왕, 「홍천사의 역사와 사상」, 『강좌미술사』 53,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9, 95-111면.
박용진, 「고려대장경의 정치·사회적 기능과 의의」, 『동국사학』 59,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5, 161-199면.
백순천, 「朝鮮初期 興天寺의 造營과 役割」,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1.
변광석, 신나경, 「조선시대 개성의 演福寺를 통해본 지역성 탐색」, 『역사와담론』 56, 호서사학회, 2010, 343-367면.
오용섭, 『고려신조대장경 후쇄고』,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4.
_____, 「同願者로 본 태조2년 印經考」, 『서지학연구』 20, 한국서지학회, 2000, 26-55면.
禹貞相, 「開慶寺考」, 『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 동국대 사학회, 1960.
유부현, 「고려 재조대장경 경전의 종수와 권수」, 『서지학연구』 85, 한국서지학회, 2021, 51-77면.
윤 정, 「太祖代 貞陵 건설의 정치사적 의미」, 『서울학연구』 37,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9, 155-191면.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권상, 新文館 1918.
이봉춘, 「조선 개국초의 排佛推進과 그 실제」, 『韓國佛教學』 15, 한국불교학회, 1990, 79-120면.
_____,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2015.
李智冠 編著, 『海印寺誌』, 가산문고, 1992.
한우근, 「麗末鮮初의 佛教政策」, 『서울대 논문집』 6, 서울대, 1957, 3-80면.
황인규, 「麗末鮮初 演福寺 塔 重營과 洛成」, 『東國역사교육』 7·8, 1999, 151-177면.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Abstract】

Printing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its Significance from Taejo to Sejong in the Early Joseon Dynasty

Park, Yong-Jin*

Since the Tripitaka Koreana was engraved in the 13th century, Records show that the Tripitaka was printed about 20 times. There are a total of 7 cases in the Joseon Dynasty, but 4 cases were made from Taejo to Sejong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Tripitaka Koreana printed in 1393 was enshrined in the five-story pagoda of Yeonboksa in Gaegyeong at the wishing of Taejo, the royal family, and government officials. The printing of the Tripitaka was to commemorate the founding of Joseon together with King Taejo, the royal family, and officials, and to pray for the welfare of the nation and the people through Buddhist power.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prayed for the end of war and national development.

In 1399, during the reign of Jeongjong, the printing of the Tripitaka was accomplished through state support based on private materials at the wishing of Taejo. The Tripitaka Koreana printed in 1399 was enshrined in the Salitabjeon (舍利塔殿) of Heungcheonsa in Hanyang, Joseon. Taejo founded Heungcheonsa and Salitabjeon in Hanyang, the newly developed Joseon Dynasty, and enshrined the Tripitaka to pray for the royal family's ancestral rites and national protection by Buddhist power.

In 1413, during the reign of Taejong, the printing of the Tripitaka was carried out under the order of Taejong, and it was enshrined in Gaegyeongsa, the Palace for Memorial Ceremony (齋宮) of Taejo. The printing of the Tripitaka to be enshrined in Gaegyeongsa had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respect for the founders of Joseon besides the filial piety of Taejong.

In 1440, during the reign of Sejong, the printing of the Tripitaka was to be enshrined in the Salitabjeon of Heungcheonsa. Sejong inherited the ideology of the founding of Heungcheonsa by Taejo,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and rebuilt Heungcheonsa's Salitabjeon and enshrined the Tripitaka to enhance its status and authority.

Keywords: Tripitaka Koreana, Tripitaka printing in 1393, Tripitaka printing in 1399, Tripitaka printing in 1413, Tripitaka printing in 1440, Yeonboksa, Heungcheonsa, Gaegyeongsa.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0.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